

광운 소식



VOL.116

KWANGWON NEWSLETTER



광운소식 116호 표지를 장식한 이는 팬데믹 시대에서도 멈춤없이 광운대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두 명의 외국인 학생입니다. 특별히 광운대학교는 '제3주기 1차년도(2020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명단에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 광운대학교'에서 꿈을 펼치는 '글로벌 광운인'을 표지에 담아 보았습니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관련 기사 10p

우리의 꿈은 멈추지 않아요!

SAMIGULLINA AIGUL (국어국문학과 19, 러시아)

광운대에 다니면서 특히 좋은 점은 빛슬재(기숙사)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여자인 제게는 침단 보안 시설이 있는 기숙사가 늘 보호해주는 안전한 집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멘토 제도 및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광운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LIU YITING (국제학부 18, 중국)

광운대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교수님과 학생들을 위한 뛰어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수님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시고, 학생들은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측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어 정말 좋습니다.

CONTENTS

광운이 중심이다

- 04 Special 광운 총장 신년사
- 06 Core 광운 글로벌리더스포럼 2020 / 2020 한경 취업·창업 대학평가 & 2020 라이텐 랭킹
- 10 the 큰 변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 교육부 BK21 사업 선정
- 14 the 나은 광운 광운창작소 & SNK-클리닉센터 I·II 개관

광운인이 중심이다

- 16 the 높은 가치 뉴욕주립대 교수 정문영 동문 / 한국e스포츠협회장 김영만 동문 / 검사 임현진 동문
- 22 the 깊은 탐구 경영학부 김상률 겸임교수의 '다르게 보는 눈'
- 24 the 넓은 지식 #광운대_어게인 캠페인 / 5인의 싸강 스타 교수
- 28 the 힘찬 도전 혁신인재양성사업단 / 참빛설계학기 성과발표
- 32 the 많은 나눔 총동문회 장학증서 수여식 / 발전기금 기부자 김은수 교수 &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한병우 원장
- 36 KW NEWS 주요 단신 소식
- 42 KW LOVE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약정명단

광운소식 2021 Vol.116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인 유지상

편집인 김정권

발행처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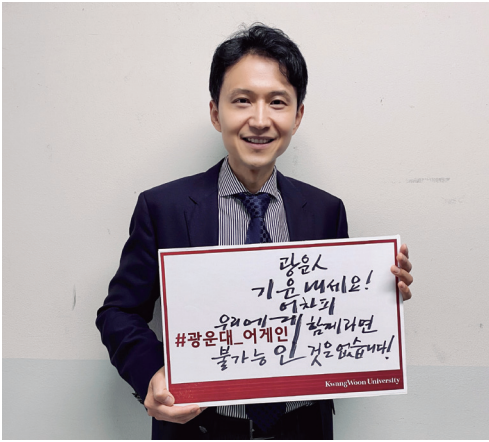
전화 02-940-5504~5

팩스 02-940-5506

주소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화도관 104호

제작 감커뮤니케이션 02-733-2878

※ 본 소식지 취재 및 촬영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작하였습니다.



#광운이_중심이다#광운인이_중심이다#우리_다시#광운대_어게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운대학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해, 2021년은 소의 해, 신축(辛丑)년입니다. 소는 움직임이 둔하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때가 오면 굉장하고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2021년, 제 총장 임기의 마지막이 될 올 한해, 소의 힘처럼 우직하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총장 임기 3년 간 끊임없이 준비해온 노력의 성과가 완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시아시피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갈 대부분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적극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즉,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까지 모두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은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함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기존에 인간이 해 오던 많은 부분을 대체 할 것이고 따라서 데이터 문해력과 기술적 문해력, 인

간 문해력을 가진 인지가능력이 탁월한 창조적 인재를 사회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도 이에 맞도록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총장에 취임한 첫째 광운대학교의 10년 후의 바뀐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약 50여 분의 교수님과 함께 'K-vision 2030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대학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 10년, 20년 후에 광운대학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특성화, 국제화, 평생 교육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도출된 60여 개의 실행 과제는 각 부서의 로드맵에 반영되어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은 상황마다 도전의 연속이었고, 대부분의 행정력은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갈음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임기 4년 내에 미래 경쟁력을 가진 강건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총장으로서의 목표를 추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교수님께서 도와





주시고 각 부서장님 이하 구성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산학도약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는 광운을 만들기 위한 도전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산학 교육혁신, 산학연구, 학생취창업, 창업 및 기업지원, 국제화, 지역사회공헌, 대외교육, 브랜드 분과 등 모두 8개의 분과에 총 60여 분의 교수님이 참여하여 90여 개의 실행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미 반영되고 있는 'K-vision 2030 발전계획'의 실행과제와 더불어 앞으로 각 부서의 업무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vision 2030 발전계획위원회'와 '산학도약발전위원회'는 저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학의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광운대학교를 준비하는 Glocal Multi-University로 도약시키기 위한 총장으로서의 공약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수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00여 분의 교수님들께서 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이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사람 등 외적 하드웨어만 빼고는 다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 중 교육과 연구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교수님들 이야말로 어렵사리 도출된 실행과제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저도 남은 제 임기 중에 두 위원회에서 도출된 실행과제들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한 노력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요컨대 두 위원회의 지향점은 제 임기 내내 강조한 세 가지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정적 재정구조 확보, 대학의 위상 제고로 대내외 경쟁력 확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가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향점에 가까워질수록 광운대학교는 향후 10년, 20년, 아니 더 나아가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고 발전하면서 준비의 날갯짓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안정적 재정구조 확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재학생 총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대학으로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에 없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국제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국제화에 한 획을 그을 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화교육역량 인증평가'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학부생 기준 유학생 1,000명 시대를 활짝 연 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난 3년이 국제화 사업의 외연 확대를 목표로 했다면 국제화 사업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2021년은 국제화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3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간의 성과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한편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걱정과 기대로 새해 아침을 맞는 심정이 자못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남은 제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국제화를 통해 안정적 재정구조의 기반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지난 3년 간 공들인 대학의 대외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내외 평가에 포함되는 각종 지표 값을 제도개선과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높여 나가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노출도인데 최대한 높여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 부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 시대 생존할 수 있는, AI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현장 적응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다 바뀌도록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한 일들이 단계별로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웅비하고 있는 광운의 모습을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장과 부서장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운 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같이 한 번 해봅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 풀어 가는 지혜,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해 하얀 소의 우직하고 선한 행운이 우리 광운 가족 여러분들과 꼭 함께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항상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파이팅!'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광운대학교 총장 **유지상**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
'글로벌리더스포럼 2020'에서 팬데믹 시대의 교육 방향성 제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는 글로벌리더스포럼에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AI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 쏟아졌다.

학교법인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이 '글로벌리더스포럼 2020'에 패널로 참여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리더스포럼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2020년 11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양일간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총 6개의 세션으로, '포스트코로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AI 교육, 파괴적 혁신', '포스트코로나, 격변의 세계경제 리더십', '포스트코로나, 정밀의료와 의학의 미래', '바이오-메디컬, 생명연장의 꿈', '로봇릭스 사회, 현실이 되다'로 구성됐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두 번째 세션, 'AI 교육, 파괴적 혁신'에 패널로 참여하여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벤 넬슨 미 미네르바스쿨 CEO, 폴 르브랑 미 서던뉴햄프셔대 총장, 존 슈왈츠 미 에드엑스(edX)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 박형주 아주대 총장, 장순홍 한동대 총장 등과 함께 코로나 시대 속 AI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복적이면서 예측이 가능했던 일들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학습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정책결정자들과 교육지도자들이 모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고든 브라운 前 영국 총리가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홍두표 TV CHOSUN 회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연사로 엘리자베스 킹 前 세계은행 부총재, 나디엠 마카림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 마이클 크로우 미 애리조나주립대 총장, 크리스토퍼 토마스 미 스탠포드대 교수, 미 하버드 의대 병리학자 교수, 켄 골드버그 미 UC버클리대 산업공학 학과장, 헨릭 크리스텐슨 미 UC샌디에고대 컨텍스트 로봇릭스 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Mini Interview

조선영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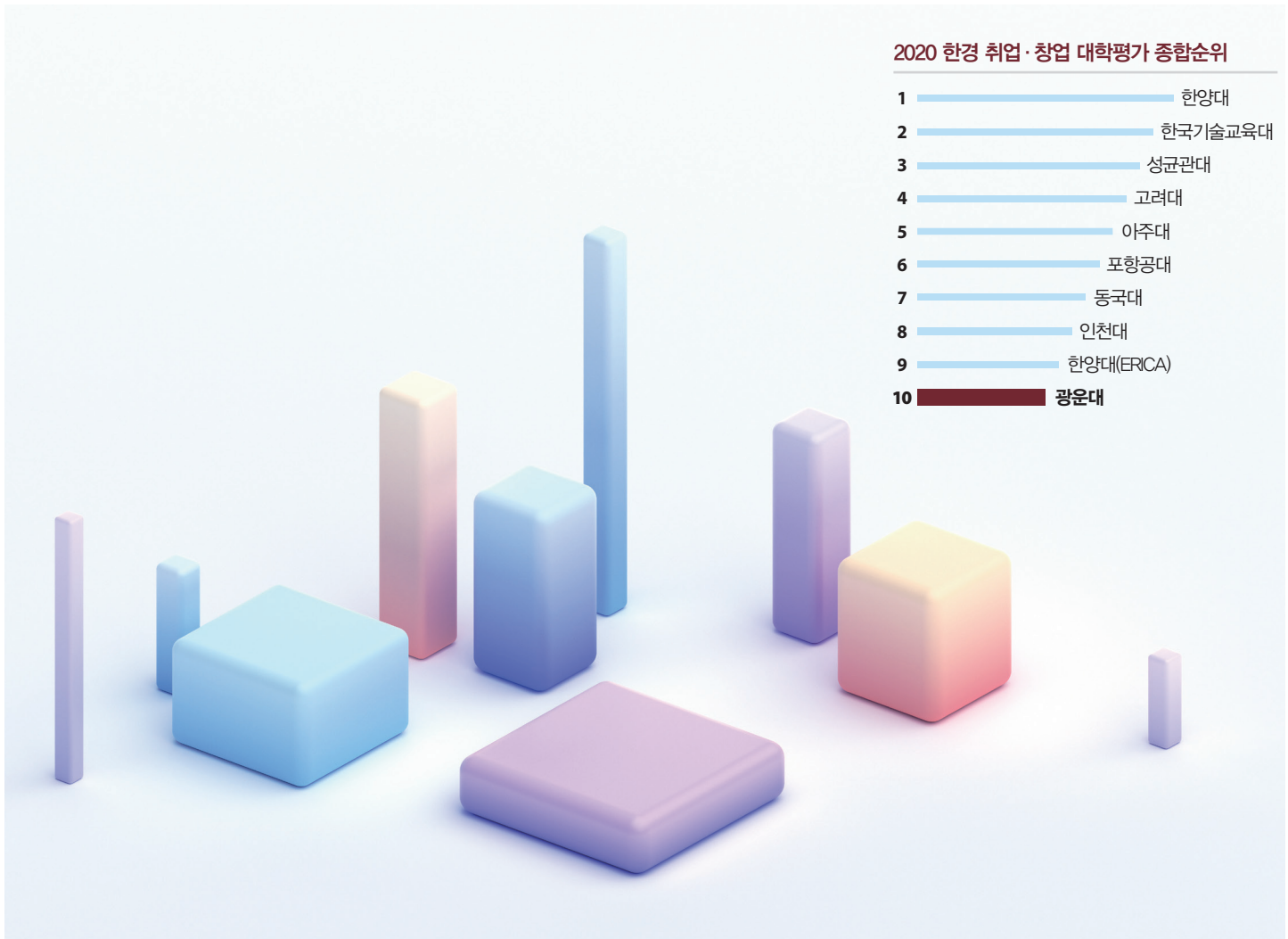


저는 광운대학교가 엘리트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교가 아닌, 참다운 성인으로서의 길로 인도하는 교육 기관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광운의 최첨단 과학기술 교육의 중심에는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인간다운 품격을 지닌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시대는 물론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연구와 교육에 있어 실제 사회와 인류에 적용 가능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90여년 가까이 그랬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광운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2020 한경 취업·창업 대학평가 광운대, 전국 대학 **종합 10위** 쾌거

2020 한경 취업·창업 대학평가 종합순위

- 1 ■ 한양대
- 2 ■ 한국기술교육대
- 3 ■ 성균관대
- 4 ■ 고려대
- 5 ■ 아주대
- 6 ■ 포항공대
- 7 ■ 동국대
- 8 ■ 인천대
- 9 ■ 한양대(ERICA)
- 10 ■ 광운대



코로나19 확산 여파까지 더해진 극심한 취업난 속에 취업·창업 실적이 대학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캠퍼스 잡앤조이가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2020 한경 취업·창업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위기 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하는 광운대 파워를 증명했다.

전국 294개 대학(4년제 대학 161개, 전문대 133개)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각 대학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하는 취업률, 유지취업률, 창업 학생 수, 학생당 창업지원액 등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학생 당 창업전용공간규모 1위, 학생당 창업지원액 2위 등 창업 관련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우리 대학이 최근 발표된 2020 라이덴 랭킹(2020 Leiden Ranking)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사회과학 인문학 순위는 2위, 자연과학 공학 순위는 3위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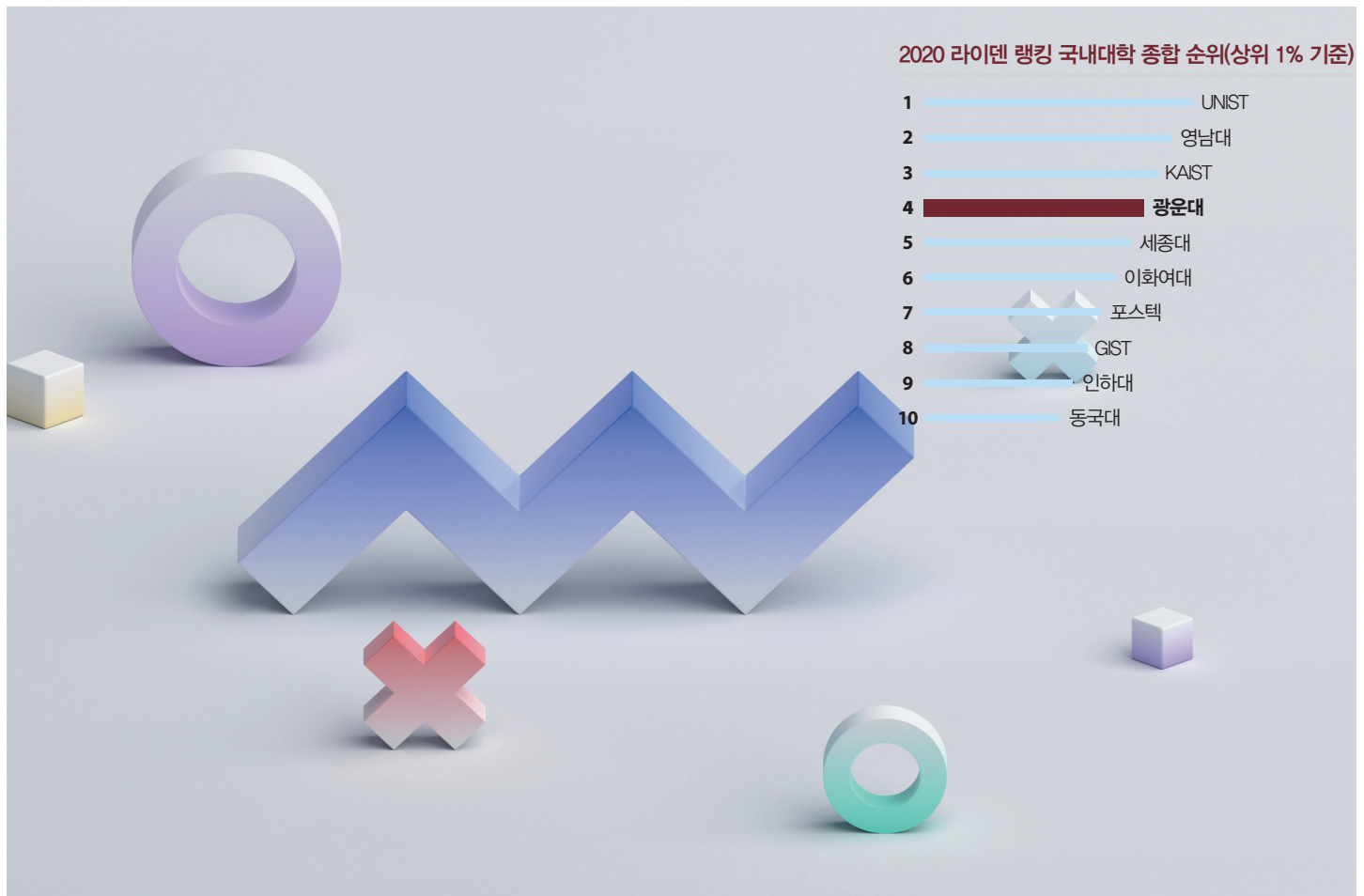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라이덴대학교 내 과학기술연구센터인 CWTS(The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가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대학의 평판이나 규모가 아니라 각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영향력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들의 연구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1,00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대학을 대상으로, 총 65개 국가 1,176곳의 대학을 분석한 결과다. 각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순위의 기준이 된다.

라이덴 랭킹의 특징은 논문의 질을 평가한다는 데 있다. 전체 논문뿐만 아니라 피인용도 등을 바탕으로 상위 1%부터 상위 5%, 상위 10%, 상위 50%의 논문 수도 별도로 제시한다. 상위 1%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

2020 라이덴 랭킹,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 종합 4위 기록

을 피인용도를 기반으로 줄 세웠을 때 말 그대로 '최상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에서 광운대가 종합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연구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 랭킹으로는 우리 대학이 자연과학·공학 순위 중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의생명과학·보건학 순위 중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과학·인문학 순위에서는 상위 1% 논문의 질 평가에서 2위와 상위 10% 논문의 질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



국내 유학생 20만 시대, K-에듀 돛 달고 순항하는 광운대학교



김정권 대외국제처장

광운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월 중 교육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3주기 1차년도(2020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기존 2주기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대학의 국제화 전략 및 인프라, 유학생 선발·입학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과정 전반과 교육의 성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 평가 시행의 원년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정된 결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증 유지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이번 인증 획득으로 대학은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수확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유학박람회·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운대는 2019년부터 '미래지향형 광운 국제화 브랜드 창출을 통해 글로벌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국제화 비전을 수립하고 3대 국제화 발전목표와 5대 국제화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과감한 예산배정과 빠른 의사결정,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화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현재 16개국 1,062명의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고 21개국 115개 해외대학과 다양한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ACP(All-Care Program)를 통해 수요기반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선, 전공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선, 진로지원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기업과의 '고용계약형 Scholarship 산학연계 협정' 체결을 통해 3학년 과정부터 100% 외부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Interview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선정이 되려면, 그만큼 철저한 유학생 선발관리가 필요할텐데요. 현재 광운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광운대 유학생 숫자가 올해 천 명이 넘었습니다. 보통 한 학기에 150~200명 정도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데, 2021학년도에 8학기를 꽉 채우게 되고 2학기가 되면 1200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유학생이 선호하는 과로는 경영학과, 국제통상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국어국문학과가 있는데 최근 전자정보대학이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공계 학생들도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학생들도 많지만 우리 대학은 베트남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이며 베트남 현지인 호찌민, 하노이에서도 광운대라는 이름을 알 정도로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유학생 업무를 따지면 학생 유치와 관리인데, 우리 대학은 그것에 더해 학생들의 학업을 잘 이끌어서 진로나 취·창업과 연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이노텍,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대학 졸업 후 바로 베트남 하노이나 호찌민에 취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유학생들 취업이나 진로, 창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학교가 되려고 합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 되기 위해 광운대가 해온 노력이 따로 있다면 무엇 일까요?

교육국제화인증은 3주기가 됐는데요. 정량 평가도 하지만 정성평가에 있어서 유치나 관리 프로그램이 뛰어나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 관리나 이탈률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광운대는 이번에 전국에서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3주기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 유치는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으로 나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학생은 당해 연도 대학원생 정원의 10%만 뽑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유학생은 정원 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올해부터는 유학생을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인증이 되지 않으면 제약이 많습니다. 향후 인증 대학은 국가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전환될 예정이니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학생 입장에서도 교육국제화역량을 인증 받은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또, 정성, 정량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커리큘럼이나 지원 체계를 인증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K-에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인증 대학에 여러 지원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생들이 인증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지사요, 유학생들을 소개해주는 에이전시에서도 인증 대학과 비인증 대학에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제도와 관련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16만 명 정도 유학생이 와있는데, 정부에서는 K-에듀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유학생을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크게 보면 한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고 나아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K-에듀 사업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우리 광운대는 ICT를 정점으로 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학이니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문화나 과학기술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한발 내딛는 광운대

전자융합공학과, 전자공학과 교육부 BK21 사업 선정

이종철 전자융합공학과 교수(초연결 인간경험 웰니스 융합기술 교육연구팀)



Q

- BK21 사업 선정 소감이 어떠신지요.
- 지원받는 연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BK21 사업 선정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사업 선정 이후 연구 활동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당연히 기쁩니다. 저희 학과가 예전에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3단계에는 참여를 못했는데, 학과를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돼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과를 지원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중장기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돼 학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전자융합공학과라는 과 특성에 걸맞게 전자공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과 교수님들의 각기 다른 전공 분야를 잘 융합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과제 내용을 위해 참여 교수님들이 많은 시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거쳐 인체 친화형 웰니스 융합 센서 연구, 무선 초연결 기술 연구, 웰니스 서비스 플랫폼 연구 등으로 내용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 '인간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ICT기술 특성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체 친화형 융합센서 전문 인력과 웰니스 상태 진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초연결 기술을 위해 융합센터 데이터 통합처리 및 통신 및 인공지능 시스템, 무선 초연결 기술의 전문 인력을 키워낼 예정입니다.

- 기본적으로 BK21 사업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인건비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진학해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이 저조해서 대학원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이번 BK21 사업 선정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 교수님들과 함께 저희 팀의 잠재 역량을 총 동원해 저희들이 제시한 연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사업 준비에 힘써주신 이상신, 박재영, 김정근, 채성호, 이현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반도체소자/차세대통신 융복합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차세대 ICT 관련 분야인 반도체소자/차세대통신 융복합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 우리 광운대의 위상과 인지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융복합 교육연구팀은 학내 교수님을 비롯해 약 50명 규모의 대학원 석박사생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으로 나노-마이크로 구조물 기반의 반도체소자와 차세대 6G 응용혁신 기술 활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차세대통신 융복합기술은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과 스마트화/소형화되는 가전 등에 따라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6G 산업 패러다임 혁신, 6G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이용자 참여 확대 등 경제/산업적 변화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소수의 대학원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BK21 사업에 선정된 학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원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해당 팀에 소속된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BK21 사업팀 소속의 학과에 지원하는 대학원생들은 우수한 SCI 논문 출판, 해외장기 연수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창출하여, 취업 및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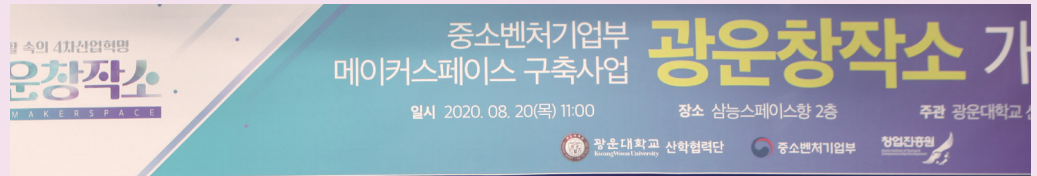
- 교육적 측면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국제적 연구 감각을 보유한 대학원생 양성을 통해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소자 및 통신 응용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미래 연구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연구 결과의 산업화 및 특허 등록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요지향적 연구 방향 설정 및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석·박사생을 70명 이상 배출하고 취업을 100% 달성 및 우수한 SCI 논문 출판, 해외장기 연수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훈 전자공학과 교수(반도체소자/차세대통신융복합 교육연구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반도체소자/차세대통신융복합 교육연구팀(팀장 이지훈 교수)과 전자융합공학과 ‘초연결 인간경험 웰니스 융합기술 교육연구팀(팀장 이종철 교수)이 정부의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두 팀은 향후 7년 간(2020.9.1~2027.8.31) 각각 16억 원, 1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팀의 수장인 이지훈, 이종철 교수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곳에선 누구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



광운대학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 청년 창업가를 위해 창업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광운창업소와 11월에 SNK-클리닉센터 I·II를 개관했다.
 예비 창업·창작가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어줄 광운창업소와 클리닉센터를 소개한다.



광운창업소 SNK-클리닉센터 I·II 개관

광운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 메이커스 플랫폼 '광운창작소'와 청년창업을 위한 SNK-클리닉센터 I·II를 열었다. 광운창작소는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됐다. 앞으로 융합 메이커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이 공간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진행할 'Story Making Room'과 3D프린터 제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공방인 'Digital Factory'로 구성되어 아날로그와 디지털미디어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형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축됐다. 특히 VR/AR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영상 제작, IoT 기술이 접목된 생활소품 제작 등 일상생활 속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SNK-클리닉센터 I·II는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주민, 청년 창업가를 위해 마련한 창업공간으로, 'SNK'는 서울시(Seoul)-노원구(Nowon)-광운대(Kwangwoon) 등 각 주체들의 영문 앞 글자를 따왔으며 '클리닉'은 창업에 단계별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치의 개념을 의미한다. 클리닉센터 I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공간과 공용카페, 창업스튜디오, 체류형 창업 공간 등이 있으며, 클리닉센터 II는 캠퍼스타운사업단 사무공간과 강의 공간, 창업부스 등이 조성되어 있다.



광운창작소
 위치 광운대역 앞 삼능스페이스향 2층

SNK-클리닉센터I
 위치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15길 51

SNK-클리닉센터II
 위치 광운대 80주년기념관 B106



뉴욕주립대 교수 정문영 동문
(경영학부 01)

많은 후배들이
세계 곳곳에 펼쳐진
기회를 먼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광운 후배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서 중요한 위치를 먼저 선 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종신교수 과정으로 재직 중인 정문영 동문(경영 01, 이하 정문영 교수)의 말이다. 광운대 경영학부로 시작하여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되기까지, 그의 풀 스토리가 지금 펼쳐진다.

광운대 경영학부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

정문영 교수의 시작은 경영학부였다. 01학번인 그는 장학금도 받고 학사장교까지 나온 우등생이었다. “학사장교를 마친 후 유학을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이신 이홍 교수님의 영향으로 인사 관리 분야를 생각하고, MBA 경영학 석사를 하게 되었지요. 석사 학위는 브랜다이스대학교(Brandeis University)라고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인데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정 교수는 석사과정 1년차 때 중 수학적 경제학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 MBA 경영학 석사 과정 이후 경제학 박사 과정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떼다

“글로벌 경제나 금융 수업이 너무 재미 있었습니다.” 경제학 박사과정을 결심한 정 교수는 석사 대학원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MBA에서는 석사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데 박사과정에 가고 싶어서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을 찾았고 논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뉴욕 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정 교수는 1년차 과정부터 강의를 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펀딩(연구후원)을 늦게 받아 소위 생계형 강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미국 대학 교수가 되는 발판이 되었다.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뉴욕주립대 강단에 서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통 3년차 되기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는데 전 1년차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정 교수의 영어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우연한 곳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경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도 교수님을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4년, 아직 미·중 무역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조짐이 일어날 시기였다. 그리고 정 교수가 박사 과정을 졸업한 2017년에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이 일어났고 정 교수의 논문은 주목을 받게 된다. 좋은 저널에 박사학위 논문을 게재하였고, 교수 잡마켓에서 여러 학교에서 인터뷰를 받게 되었으며, 정 교수는 첫 캠퍼스 인터뷰를 요청 받았던 뉴욕주립대 코트런드 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Cortland)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펼쳐질 미래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라

미국과 중국 경제가 소용돌이치는 현재, 이를 중재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반도라고 정 교수는 확신한다. “미국이 중국 경제에 대해 알고 싶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중국인을 고용하기는 힘들다고 보면 당연히 중국 경제를 잘 알고 있고, 중국 경제와 밀접한 한국인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미·중 무역분쟁의 완충지가 되면서 세계 미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중심에 광운대학교 후배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글로벌 인재가 되어

세계 곳곳의 기회를 잡아라

“영어는 노력하면 되지만, 전공은 꼭 기초가 탄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유학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정 교수가 당부하는 말이다. “학부 때 기본이 되는 학문의 지식을 탄탄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학을 예로 들면 수학이나 통계학을 꼭 수강하고 유학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후배들에게 글로벌 시각도 함께 쌓기를 바랐다. “외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벌’보다 ‘실력’입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글로벌화’ 되어서 세계 곳곳의 뽀아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정 교수 자신 또한 후배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있는 뉴욕주립대와 광운대학교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꼭 성사시켜 코트런드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외국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인재에 여러분의 이름이, 광운인의 이름이 함께 올려 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장 김영만 동문(전자계산학과 81)

Q 한국e스포츠협회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e스포츠협회 전신인 '21세기프로게임협회'에서 초대 협회장으로 부임해 2대 회장까지 역임했고, 15년 만에 8대 회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온 2020년의 e스포츠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초창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와 프로게이머라는 신종 직업이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것에서, 이제는 프로e스포츠선수는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되었으며 e스포츠산업은 하이테크시대 블루오션으로서 다양한 투자와 기술적 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e스포츠는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20년이 넘는 역사동안 선수양성 노하우, 탄탄한 유스 시스템, 방송 기술 등을 토대로 e스포츠 중주국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협업하려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가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듯 광운의 교육이 지식의 중심이 되기를

한빛소프트 창업, 스타크래프트 최단기간 1백만 장 판매
기네스 상 수상, 이를 통해 한국 e스포츠의 장을 연 장본
인. 바로 현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김영만 동문이 걸어온
족적이다. 1, 2대 협회장을 지내고 15년 만에 8대 회장으로
돌아온 김영만 동문을 만나 앞으로 한국e스포츠가 걸
어갈 길, 그리고 광운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남기는 이야
기를 들어 보았다.



Q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
입니까?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통령배와 군장병대회, 대학리그와 한중
일 국가대항전 등의 대회를운영규정 제정은 물론, 선수 양성부
터 코치 및 감독 등을 양성해내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세계 e스포츠 시장의 선두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현재 국제올림픽기구 IOC와도 e스포
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산업의 '처음'을 도전하셨고, 이를 '성공'으로 귀결
시키셨습니다. 이것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빛소프트를 창업하기 전 LG그룹의 LG소프트에서 11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사업까지 훈련을 잘 받았고, 게임 영화 음반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에 대한 사업기획부터 사업실행까지 한 사이클을 운영해
본 경험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한 것은 성과를 낼 때까지 강하게 추진하였습
니다. 이러한 실행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며 일을 처리해 나갔던 것이 처음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운 거 같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Q 광운대도 항상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모교
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입학할 광운 공과대학 이공학부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1학년을 마친 후 전자계산학과로 지원하여 대학생활을 하다
가 광운대학교로 승격한 후 첫 졸업생이 된 것이지요. 즉 광운
대가 단과대학이었던 시절의 학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명실공
히 9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을 지닌 종합대학교로 성장한
대학의 동문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모교가 성장한 모습을 보
니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광운인들의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은 후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실수하지 않는 길은 먼
저 가본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도전하
십시오. 선배들은 항상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Q 이번 소식지의 주제는 '중심'입니다. 광운의 선배로 어려운 시
기에 후배들에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돌아켜보면 어떤 시기든 늘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이기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고 편법을 쓰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
고 깨끗하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어려운 때이지만 환경
탓, 남 탓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을 걷으십시오. 저
또한 이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인연’,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검사
되고파

임현진 동문(법학부 09)

Q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에 입학한 지 어느덧 12년이 다되어가네요. 처음 대학교에서 추가합격통보를 받았을 때만 해도 기뻐 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더 좋은 기회로 검사가 되어 이러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Q 법조인의 길을 걸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광운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검사를 꿈꿔왔습니다. 다만, 제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서 진로에 대한 준비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 법학을 전공하면 검사는 되지 못해도, 법조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광운대학교 법학부로 진학했습니다.



Q 동문님이 느끼시기에 광운대학교 법학부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운대학교 법학부는 한재경 교수님, 김진곤 교수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교수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업도 논리정연하시고, 시험 출제 및 채점도 공정하여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족보 없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진학 및 진학 후의 학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 시험공부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수험 기간을 보내셨는지요.

공부해야 될 양이 방대하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시험 준비는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처음부터 두껍고, 판례가 많이 실린 교수저 교과서가 아닌 가벼운 수험서를 기반으로 공부했고, 학교 수업을 최대한 충실히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체크해두고, 교수님께 질문하여 해결했습니다.

수험기간은 학교의 커리큘럼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보냈습니다.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진도에 맞춰 인터넷 강의, 수험서, 기출교재 등을 참고하고 쟁점마다 검찰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미리 답안을 만들어 저만의 수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동기들에게 공유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매일 공부를 미루지 않게 되고 제 자료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논의할 부분에 관해 피드백을 받아 수험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검사 임명 후 스케줄과 어떤 검사를 목표로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금년 1월까지의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일선청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건 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업무를 제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업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직은 제게 정말 어려운 목표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출신 세 명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한 명인 임현진 동문은 현재 신규 검사로 임용돼 연수원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검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 지, 수험 시절부터 임용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번 소식지의 주제는 '중심'입니다. 동문님에게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고민 끝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고, 좌절할 적도 많았습니다.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곁에는 늘 저를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갑작스런 질문에 같이 고민해주는 좋은 인연입니다. 그들 모두가 제 삶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갖고 살기 위해 주위의 모든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후배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입학하셨을 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며 졸업을 앞두신 분들도, 갑작스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모두 젊은 날의 소중한 시기를 아깝고, 힘들게 보내시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후배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자기다움'을 지닌
'남다름'을 구축하라!

김상률 교수의 '다르게 보는 눈'



차별화를 주제로 한 마케팅 책들 중 '나름보다 다름'의 책을 읽고 다름이 왜 더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모두가 다름을 실행한다면 다들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왜 다름을 강조한 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 브랜딩이 성공을 하지 못한 걸까?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일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며 또한 다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름을 실천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건 다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 다름과 의미 있는 다름을 구분하지 못해서이다.

나는 이를 차별과 차별화로 구분하고자 한다. 단순 다름은 차별이고 의미 있는 다름은 차별화로 일컫는다. 단순 다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유는 경쟁자들과 조금만 달라도 그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단순 다름과 의미 있는 다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바로 고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름이나 그렇지 않는 다름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다름에 대하여 고객이 공감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없다면 차별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의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기다움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자기다움은 경쟁자와 차별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공감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기다움을 알아주는 한 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 10명의 선호도를 가진 고객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즉 일당백의 역할을 한다. 자기다움을 인정받은 브랜드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이루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 자기다움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 이것이 차별화의 핵심이다. 마케팅에서 전략 구축 시 SWOT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며 위협을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분석이 자기다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몸집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다움을 구축해야 경쟁사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고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야 의미 있는 다름 즉, 진정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경영학부 김상률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브랜드 경험에 관한 논문주제로 경영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 Oxford대학교 Said경영대학원에서 Knowledge Management 과정 및 캐나다 British Columbia대학교 Sauder경영대학원에서 Brand Management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년 동안 브랜드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브랜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SK텔레콤 'T', 현대자동차 '에쿠스', 삼성전자 '갤럭시 서브네임', KT&G '레중', 한국제지 '밀크', CJ '도너스캠프', 남광토건 '하우스토리' 등 브랜드네이밍 경험과 KT그룹, 한화그룹, SK C&C, 하이트진로, 뉴스킨코리아, 하남도시공사, 서울시, 문화재청 등의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광운대 경영학부에서 겸임교수로서 브랜드관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위원회 전문위원, 사단법인 국제뷰티크리에이티브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운대 대외국제처 홍보팀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광운대_어게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운인이 서로를 격려하는 SNS 릴레이 이벤트, 영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 #광운대_어게인 문구를 활용한 광고 포스터, 자신을 스스로 독려하는 자가격려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분야에서 광운인들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비대면 강의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교수님들을 뽑는 '광운대 싸강 스타 교수님을 찾아라!'도 진행됐다.

영상 콘텐츠와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20~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고 자가격려 이벤트 당선자와 싸강 교수님 추천 학생, 해당 교수님에게는 모바일 기프트콘이 상품으로 돌아갔다. 광고포스터 공모전의 대상인 화도상은 미디어영상학부의 김도희(18), 박지은(19) 학생 팀이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광운대_어게인 6행시를 표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중앙광장을 배경으로 광운인들에게 힘을 내보자는 메시지를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공모전에서는 정보융합학부 조하연 학생(17)이 화도상을 거머쥐었다. 조하연 학생은 '우리의 봄을 향해'를 주제로 코로나19라는 힘든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다시 오길 기다리는 광운대 구성원들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영상에 녹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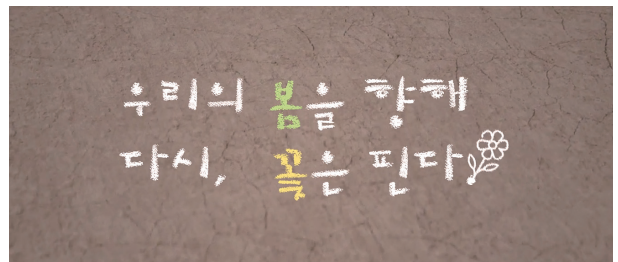
봄	을		향	한		광	운	인	의
날	갓	짓							

광	운	대		어	게	인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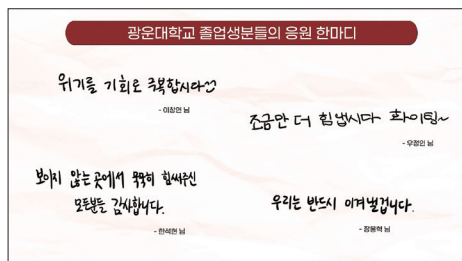
영상부문 화도상(대상) 조하연_우리의 봄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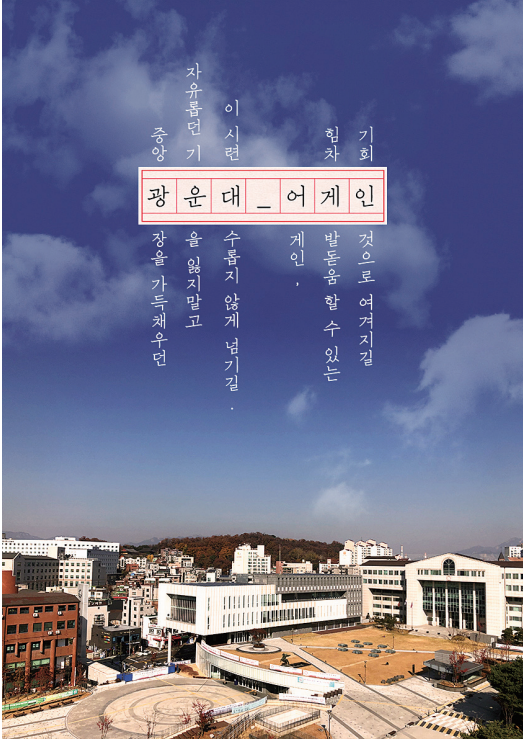
QR 영상 보러가기



영상부문 비마상(우수상) 윤지희_광운히어로



QR 영상 보러가기



포스터부문 화도상(대상) 김도희, 박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의 바람, #광운대_어게인,

이번 행사에서 광운인들은 비록
몸은 같이 마주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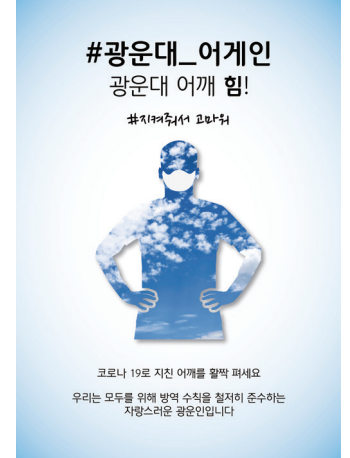
QR 영상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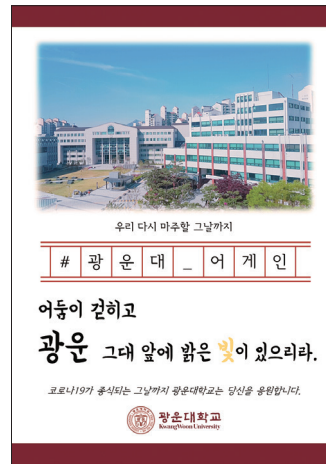
영상부문 비마상(우수상) KIF 동아리_광운대_어게인 with KIF



포스터부문 비마상(우수상) 박지원, 정재우



포스터부문 비마상(우수상) 최수빈



포스터부문 비마상(우수상) 최현성



포스터부문 비마상(우수상) 최원규



포스터부문 비마상(우수상) 정범영

광운대 씨강 스타로 선정된
다섯 교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



광운인에게
한마디

- ❶ 나의 강의는 이것이 다르다
- ❷ 꼭 이것은 준비하고 강의 듣자
- ❸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나만의 비법

나만 알고 싶은 강의

광운대 싸강 스타 교수님을 찾아라!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에 돌입했지만, 공부에 대한 광운인의 열의는 온라인을 통해 활활 타올랐다.

'#광운대_어게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싸강 스타 교수님을 찾아라' 이벤트는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적극 살려 학생들의 호평을 얻은 교수를 선정했다. 광운인이 직접 뽑은 다섯 명의 교수를 만나보았다.



박애영 경영학부 교수

학생들과 다시 캠퍼스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란 것을 알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유난히 설렘 봄이 곧 올 거예요.



한재경 법학부 교수

철저마침(鐵杵磨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❶ 저는 수업에서 함께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학생들도 함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대면 강의가 처음이었기에 부담이 컸지만, 지나고 보니 소통이 더 활발했던 것 같고 1:1로 강의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수업시간이 더욱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수업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의 대답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질문이 계속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 ❷ 우리 수업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긴장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면 좋겠어요.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학생들 간의 참여나 이해 정도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수업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노력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 ❸ 매 시간마다 지난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한줄 요약,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 전달 등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비대면 수업이지만 실시간으로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다 보면 수업이 활기차고, 이어지는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고 또 쉽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 ❶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기법을 활용하여 한편의 재미있는 모노드라마처럼 수업을 진행합니다. 판례를 역활극처럼 꾸며 실제 당사자인 것처럼 목소리 들려주기에서부터 시작해 사건 관련 뉴스 보여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❷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적 사고)를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자신이 겪는 여러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고하는 습관을 몸에 베게 하면 어느 날부터 법학 전공수업이 재미있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 ❸ 온라인 수업이지만 마치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저기 저 학생 즐기고 있네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자 정신 차리고 수업에 집중합시다." 또는 "다들 재미있다고 웃고 있네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등의 말을 하면서 집중력 환기시간을 갖습니다.



박봉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교수

대면 수업을 듣기 어려우니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수업이지만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교수님께 물어보고, 그 질문을 통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조원주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광운인 모두 파이팅!



사영진 화학과 교수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힘 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❶ 자연과학사 수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자부합니다. 근현대 역사 중 노벨상 연구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죠.

❷ 노벨상이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 치료제인 인슐린이나 심전도를 측정하는 원리도 모두 노벨상의 내용이거든요. 실생활에서 쓰이는 연구가 많으니 노벨상을 나와 관련이 없는 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❸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계속 말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냥 듣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❶ 교수로 부임하기 전 하이닉스 반도체, 일본 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지식이 부족한 신입사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산업체와 연구소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반도체 지식과 노하우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런 경험으로 학생들이 현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지요.

❷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현대와 미래 사회에 왜 필요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어디에 활용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방향설정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❸ 어렵지 않게 개념을 전달해 재미도 있으면서 오래 남는 수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재밌는 수업은 기억에 오래 남고 학습효과가 높거든요.

❶ 저는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발견됐는지 역사적 사실과 인과 관계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❷ 저도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배우려는 마음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부하지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기존 75분 수업을 하면 중간에 지치는 학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낮아지기 전, 40분 이내로 한 강의가 끝나도록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협동로봇 교육의 새로운 중심 광운대 혁신인재양성사업단

혁신인재양성사업단 협동로봇 전문가과정 2기, 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마케팅 경진대회 4개상 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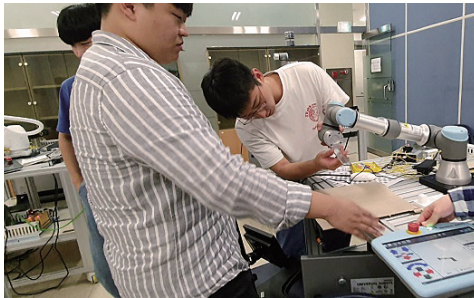
광운대학교 혁신인재양성사업단(단장 서상구 경영학부 교수)의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 교육생으로 구성된 파란손, Welders, 콜롬버스, 빵순돌이 총 4개 팀이 제6회 2020년도 로봇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R-BIZ Challenge)의 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마케팅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상을 석권했다.

파란손 팀은 법학부 14학번 김상현, 로봇학부 14학번 민건홍, 로봇학부 15학번 안성민으로 구성되었으며 Welders 팀은 수학과 17학번 한호서, 방재원, 이상민, 콜롬버스 팀은 전자통신공학과 15학번 금교석, 김민재, 박진호, 마지막으로 빵순돌이 팀은 로봇학부 16학번 위다연, 박승우, 강찬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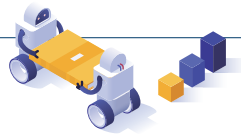
국무총리상의 파란손(팀장 김상현) 팀은 '데님산업에 부는 혁신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청바지의 위상, 나염 공정에서의 협동로봇 도입을 제안하였다. 협동로봇을 통해 4D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Motion Recording' 이라는 새로운 로봇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로봇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의 Welders(팀장 한효서) 팀은 ‘용접 공정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획서’ 라는 주제로 용접공정에서의 협동로봇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장상의 콜롬버스(팀장 금교석) 팀은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업 협동로봇 활용방안’을 제안하였고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상의 빵순돌이(팀장 위다연) 팀은 ‘언제나 따끈따끈 로봇 베이커리’라는 주제로 제빵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제안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란손 김상현 팀장은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배웠던 협동로봇과 인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성을 제안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대회 준비 기간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학교 측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김윤희 초빙교수는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과정을 수강한 2기 학생들이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기쁘다”라며 “본 과정은 로봇 실무기초 교육, 협동로봇 실습교육, 산업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 스펙을 쌓아감으로써 자신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공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많은 광운대 학생들이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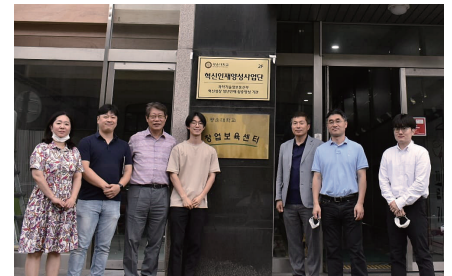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은

2019년 개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은 협동로봇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교육훈련 과정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로봇 실무기초 교육, 협동로봇 실습 교육, 산업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2019년 처음으로 1기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덴마크 올버그 연구소, 삼성전자, 소프트모션 앤 로보틱스 등 국내외 우수기업체에 로봇 비전공자들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두산로보틱스, 한국 오픈른 제어기기 등 로봇관련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교육생의 프로젝트 작품이 ‘2019 로보월드’, ‘R-BIZ



챌린지’, ‘SW 인재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어 전시되었으며, ‘대학생 창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로봇의 협동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광운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협동로봇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 교육 훈련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광운대, 교육의 혁신을 꾀하다 자기주도학습 ‘참빛설계학기’



2019년 2학기부터 실시한 ‘참빛설계학기’는 이제 광운대 교육의 자랑이 됐다. 광운대는 능동적인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역량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공학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팀 기반 자기주도적 연구 프로젝트를 인문사회계열까지 확대하며 교육혁신을 꾀했다.

능동적 학습활동 설계로 참빛핵심인재 양성

광운대학교는 2019년 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학기제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참빛설계학기’를 실시했다. 기존 교과과정이 강의자(교수)가 짜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다면, 참빛설계학기는 수강생이 직접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실현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3학기 동안 약 30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빛설계학기는 획일화된 교과과정의 한계를 넘어, 학생 스스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 공심화에 그치지 않고 인문예술, 국제교류, 창업연계 등 모든 교육과정을 총망라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주도 활동이 경력개발과 이어지는 경험되길

현재 교육과정은 학생주도형과 학생참여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학생주도형은 다시 ▲창의융합형, ▲사회문제해결형, ▲전공심화형, ▲인문예술형, ▲국제교류형, ▲창업연계형의 6개 세부유형으로 나뉘며 학생이 이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과제를 설계한다. 학생참여형은 외국어 토론대회 같은 학점인정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광운대학교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활동 수행경험이 학생들의 경력개발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역량 개발 및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빛설계학기 주요성과

2019학년도

BARAM_부릉이 팀(전공심화형)

지능형 자동차 및 자율주차 시스템 개발로 제21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지능로봇-창작부문) 장려상 수상



Newsability 팀(창의융합형)

한국 언론 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저널리즘 플랫폼 개발로 WEDIA 플랫폼 개발 도시樂 창업 경진대회 참가(본선)



2020학년도

HUBSPACE 팀(인문예술형)

문화예술형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로 프로젝트인 맵핑 영상물 온라인 전시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콘텐츠-디딤프로젝트 진행



흥부자들 팀(전공심화형)

도시재생의 이론적 탐구와 기획으로 <도시재생X동화책> 콜라보 콘텐츠 기획, 동화책 제작, 도시재생 UCC영상 공모전 참가



참빛설계학기란?

학생주도형 : 총 69팀, 227명 참여

학생 스스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과제를 수행하여 정규학점을 인정받는 특별 교육과정으로 재학기간 중 총 2학기, 최소 3학점~최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며, 학생의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정규수강과목과 병행 가능하다.

학생주도형 세부유형

창의융합형

사회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창의융합적으로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혹은 자기 전공 외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 탐구하여 창의융합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사회문제해결형

국내외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기획하여 사회적 공감 및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전공심화형

전공을 기반으로 심화과제 또는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 실현 및 연구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인문예술형

공연기획, 문예창작, 건축설계, 디자인 활동, 문학상, 영상제작, 공모전 지원 등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프로젝트 수행

국제교류형

글로벌 문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수행

창업연계형

창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보는 프로젝트 수행

학생참여형

외국어연극대회 총 64명 참여 / 외국어디베이트대회 총 17명 참여

학점인정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계절학기 학점을 인정받는 특별 교육과정으로 재학기간 중 총 2학기, 최소 2학점~최대 4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며, 학생의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정규수강과목과 병행 가능하다.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배를 존경하는 믿음으로

지난 12월 15일 광운 80주년 기념관에서는 '2020년도 총동문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조광식(전기·79) 회장, 김민수(전재·84) 사무총장과 장학생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수여식에서 조광식 총동문회장은 격려 말씀을 통해 "장학금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임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선발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모교와 총동문회를 위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야 의미가 있으니 앞으로도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광운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와 당부를 장학생들에게 전했다.

총동문회는 1998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금까지 280명의 모교 후배들에게 3억 2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올해도 다양한 분야(저소득, 성적우수, 특기, 동문 자녀 등)의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위원회(위원장 민상원(전통/84))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생 명단(학년 순)

정보융합학부 4학년 김승은
전자공학과 3학년 이태진
영어영문학과 3학년 오다경
화학공학과 3학년 송창훈
미디어영상학부 3학년 윤지희
경영학부 2학년 허재용
국어국문학과 2학년 까오티후으
화학과 1학년 이수민

I n t e r v i e w

광운대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은 1998년도 제12대 백수현 회장님께서 시작하여, 2020년도 현재까지 총 291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사회 장학생 선발규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각 단과대학별 동문회를 결성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이 잘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임기 내에 꼭 실현시켜 각 단과대학별, 개인별로 장학금 수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110명 정도의 이사진을 꾸려놓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만남 자체가 어렵다 보니 계획된 사업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를 이루고자 무리를 하지 않고 총동문회의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 2.0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2020년이었지만 2021년은 한 단계 도약하는 광운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이하 모든 임원진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중심은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참석한 장학생들은 선배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앞을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의 많은 선배들이 도움을 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오늘 장학증서를 받은 모든 후배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광식 총동문회장

더욱 성장하는
광운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재용 경영학부 19

먼저 총동문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선배님들 역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렇게 후배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저 감사 인사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 또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였는데, 저희도 처음 겪는 것이라 힘든데 외국인 학생들은 더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 멘토링, 전공 튜터링, 한국어 튜터링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이에 상경계열과 이공계열을 모두 공부하고 싶었고, 이공계열이 강한 종합대학이면서 실용학문을 중시하는 광운대학교가 제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확신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를 이중으로 전공하고 있고, 다음 학기부터는 수학과까지 전공을 늘릴 예정입니다. 동문회장님 말씀대로 자기계발에 소홀함 없이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후배에게
베푸는 광운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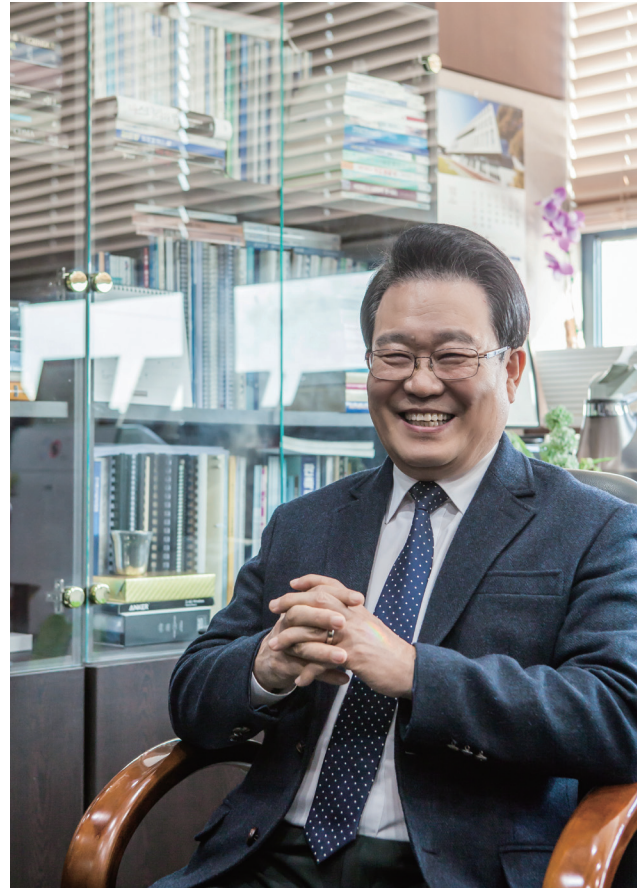
저 스스로 무척 바쁜 시기의 연속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며 계속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눔이라기보다 광운에서 외국인 친구를 얻는 것이기에 제게는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충실히 대학 생활을 하여 훗날 성공한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만큼 저 또한 후배에게 베푸는 광운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동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나눔을 실천해 왔던 저의 아내를 기억하며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교수라는 직업은 선택이 아닌 소명적 천직이었고, 그 믿음과 의지로 지난 40년간 대학교수직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광운 40년의 삶은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약간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광운과 함께한 지난 40년의 세월을 반추해보며 나를 자서전적 회고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지난 40년 간의 교수생활은 제 집사람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제 아내는 저의 전부였는데 얼마 전 지병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즐거워했던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학기금을 집사람 이름을 따서 '박현숙 장학금'이라고 해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약관의 어린 나이에 부임한 저에게 광운은 세계적인 학자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 뜨거운 아버지 가슴과 포근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명의 자랑스러운 석박사 제자를 배출한 것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형국책과제인 '국가지정연구



김은수 명예교수

실사업(NRL),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사업(ITRC)', 그리고 '선도연구센터사업(ERC)' 등에 선정된 것은 아직도 교수로서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및 '홍조근정훈장' 수상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이 보내는 끝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좀 아끼고 절약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적극적인 장학기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갑자기 팬데믹 시대가 와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학, 기업, 경제,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칠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준비해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강한 제자들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4차 산업기반의 언택트·온라인 시대에 광운대학교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한병우** 원장(건설법무대학원 17)

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여 년 간 저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부인과 동반 입학하여 아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고,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첫째 딸 또한 회계학 기반 위에 건설법학의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 올해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운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광운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채권 투자자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대학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모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진정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을 대학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서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훌륭한 교수진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여 최고의 학부가 만들어 진정으로 기부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작지만 많은 졸업생들의 기부는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이러한 모교의 발전은 졸업생들의 평생 자부심이며 그 대를 이어 자식세대까지도 이어진다 면 진정한 기부 선순환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가능하다면 기부를 위한 정기적인 만찬회를 학교 측에서 주최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전문적인 자산관리자가 잘 관리 운영하여 더 많은 재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광운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칠층 같은 어둠 뒤에도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 듯이 언제 그랬냐는듯이 우리 광운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과 설렘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많은 광운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우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국통부,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여하고 있고 국가공인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써, 특히 공사원가관리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에 입학한 이유는 이곳이 건설과 법학이 융합된 최초의 전문대학원으로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하고 각계각층의 유능한 전문직 분들을 배출했다는 지인의 소개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박사과정 5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54세의 나이에 늦게 대학원에 입학하였지만, 그동안 경험하였던 공사원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문적인 이론



광운 동정

11 광운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광운대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8월부터 총 5년간 13억 원이다. 광운대와 환경공단은 2020년 7월 21일(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약을 맺고 정식으로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출범했다. 광운대는 통합환경관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화공, 환경, 컴퓨터과학의 학과를 융합하고 통합환경관리 분야(석·박사급)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운대 김승제 환경대학원장은 "환경은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환경대학원의 통합환경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 광운대 산학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표창 수상

광운대 산학협력단은 2020년 12월 10일(목)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진행되는 '2020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표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산학협력단은 광운창업지원센터, 서울창업디딤터, 광운창업작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창업디딤터 위탁운영사업, 서울시 캠퍼스타운 지원사업,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시 동북권 창업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243개의 입주기업 보육, 투자 및 자금 연계(132.7억 원) 등의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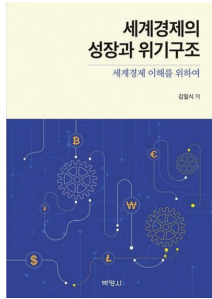
13 광운학원 시흥복합인재 양성 본격화, 오산시·iMBC 등과 협약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 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광운학원은 지난 9월 18일 오산시, iMBC캠퍼스, 한국안전경영연구원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공동 목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로봇·AI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시 스마트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시, iMBC캠퍼스, 한국안전경영연구원 등이 적극 협력해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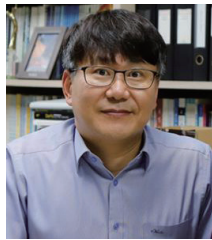
광운 성과

14 김일식 교수 저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인제대학교 김일식 교수의 저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박영사)』가 교육부 및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한 2020년 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해 왔으며 선정된 우수 학술도서는 전국대학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3,284종의 국내 출판 학술 도서 가운데 총 271종(인문학 66종, 사회과학 96종, 한국학 36종, 자연과학 73종)이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15 박재영 교수 연구팀,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 개발 가능성 열었다



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일상생활 속 인체의 움직임으로부터 고출력 전기를 생산하여 스마트 전자기기 및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친환경 자립형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고출력의 하이브리드 나노 발전기 기술은 스마트 워치 및 밴드,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에 반영구적 친환경 전원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교수 연구팀, 손 마찰전기 통해 무선 수화 통역 가능성 열어

박재영 교수 연구팀은 손가락 움직임으로 얻어지는 고출력의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전원 없이도 미세한 손동작을 연속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연 압력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 제작된 센서는 우수한 감지 특성과 기계적 견고성을 갖기 때문에 손동작 감지 및 제어 시스템, 수화 통역 시스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지능형 로봇, 드론, 게임, VR/AR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박재영 교수 연구팀, 물체 움직임 파악 가능 무전원 센서 개발

박재영 교수 연구팀이 연구자석 간 반발력과 전자기 유도 및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도 물체의 움직임을 무선(RF)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전원 모션 센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된 센서는 방향에 따른 뛰어난 모션 감지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파수, 가속도, 각속도, 기울임 등 임의의

물체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지능형 로봇, 드론, VR/AR, 자율 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박재영 교수 연구팀, '맥신' 증착 및 미세 패턴 전극 기술 개발

박재영 교수 연구팀은 1맥신(MXene-Ti3C2Tx)을 3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2전해도금을 통하여 손쉽게 증착 및 미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맥신은 탄소 원자만으로 이뤄진 그래핀과 달리 탄소와 중금속 원자가 섞인 2차원 물질로 많은 기능성 그룹을 가진 친수성 표면, 우수한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넓은 표면적, 뛰어난 촉매효과, 높은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전자파 차폐, 센서,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 전지, 에너지 수확 소자, 광학 및 반도체 소자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6 이상신 교수 연구팀, '초박형 다기능 광 집적회로' 개발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호주 국립대 최덕용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메타표면 적응형 평면 렌즈 기반 초박형 다기능 광 집적회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큰 부피의 광부품을 초박형으로 구현해 향후 자율 주행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라이더, 사물인터넷, 지능형 드론, 차세대 무선광통신 모듈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최근 초박형 메타표면 적응 구조를 도입하여 다기능 광 집적회로 소자를 개발했으며, 특히 단일 평면 렌즈 구조를 통해서 빔의 편광, 크기 및 경로 등을 동시에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이상신 교수 연구팀, 초박형 나노 메타표면 기술 3D 카메라 개발

이상신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 최덕용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초박형 나노 메타표면 기술을 이용한 3D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로봇 비전 시스템, 스마트 드론, 바이오 이미징 등과 같은 3차원 거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시간 3차원 비전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신 교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2020년 12월 10일,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는 제21회 온라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그동안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기술협력 유공자/산학연 부분)'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포도닉스 분야(광집적회로 및 응용 기술 등)에서 다수의 산학협력 R&D에 과제책임자로 참여했고 산업체 재교육,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활발한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이상신 교수 연구실, '우수논문상 및 우수연구실상' 수상

이상신 교수 연구실이 지난 11월 25~26일 진행된 '제29회 광자기술학술회의(Photonics Conference 2020)'에서 우수논문상 및 우수연구실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 연구실의 이홍량 학생은 「통신파장에서 동작하는 메타표면 더블릿 기반 초박막 역반사기」에 대한 연구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는 나노 사이즈의 구조체들로 배열된 작고 얇은 두께를 가지는 박막 형태의 메타표면을 기반으로 역반사기를 기초설계 및 구현했고 차세대 무선광통신 송수신 모듈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7 스포츠의학영양연구소 박재호 원생, 국제학술지 최우수논문상 수상



스포츠의학영양연구소 박사과정 박재호 원생이 국제학술지 'Exercise Science(Scopus 등재지)'의 2020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Best Research Paper Award 2020'을 수상했다. 박재호 원생의 논문 「Resistance Training Does Not Mitigate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Sympathoexcitation in Young Adults」에서는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혈관계의 반응 정도(cardiovascular reactivity)'를 규칙적인 저항성 트레이닝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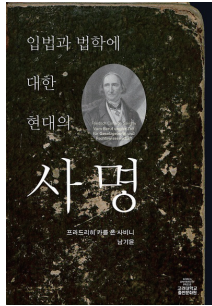
18 강성률 교수, 신간 '상처의 응시' 발간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강성률 교수가 신간 「상처의 응시」를 냈다. 영화평론가이자 대학에서 영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 교수의 두 번째 비평집이다. 저자는 지난 십 여 년 동안의 한국 영화 중 자신의 '해석 욕망'을 자극한 작품들을 '상처의 미학'이라 할 만한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번 비

평집은 개별 작품론, 감독의 미학과 영화세계,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영화를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집단무의식 등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한국 영화가 관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대중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를 이야기한다.

19 남기운 명예교수의 역사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출간



법학과 남기운 명예교수가 역서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적 사명」을 출간했다. 책의 저자인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는 독일의 로마법학자로 근대사법(민법·국제사법)의 기초를 닦은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책 속에서 《사명》은 동시대와 대결하면서 이후 법사상과 법학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명》에서 형성된 근본 사상을 바탕으로 사비니는 《현대로마법체계》 8권을 저술하면서 근대 민법학을 정초했고, 이를 계승한 19세기 후반 판덕텐 법학의 가공을 거쳐 현대 민법학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10 선지아 교수,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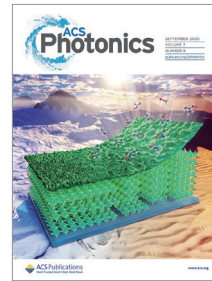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 선지아 교수가 지난 8월 19일에 개최된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베스트주니어 세션 부문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선 교수의 논문 '벤처캐피탈이 중국 하이테크 벤처기업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신홍국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공백을 메우고 국제화 이론을 확장 및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선 교수는 중국 출신 교수로 국제학부에서 중국경제, 중국마케팅 등의 과목을 담당하며,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국제경영관리 학회 편집위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11 손희상 교수, 제7회 젊은공학교육자상 수상



화학공학과 손희상 교수가 지난 9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한국공학교육학회 '2020 공학교육학술대회'에서 제7회 젊은공학교육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공과대학 등 공학계에 종사하면서 공학교육 혁신에 이바지한 젊은 공학교육자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손희상 교수는 에너지·전자 소재 분야 전문가로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한 전공수업 개발 및 공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2 황인찬 교수 연구팀, 발광소자 재현성 향상 연구



전자재료공학과 황인찬 교수는 한예은(제1저자), 김소현(공동저자) 석사과정연구원, 공동연구팀(University of Washington의 Prof. David Ginger, 국민대 이미정 교수)과 함께 저차원 페로브스카이트 형성과 발광소자의 특성이 낮은 재현성의 이유를 밝히고 높은 재현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본 연구결과는 재료 및 계면 분야의 국제학술지 ACS Photonics에 2020년 9월에 발표되었고, supplementary cover로 선정되었다.

13 이지훈 교수, MDPI Nanomaterials 특별판 총괄 에디터 선정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는 MDPI 출판그룹의 국제저널 학술지인 Nanomaterials(IF: 4.324)의 'Special Issue on Nanotechnologies and Nanomaterials' 특별판 총괄 에디터로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Nanomaterials 특별판을 계기로 ICT 관련 유망 분야인 나노물질 연구에 우리 광운대의 위상과 인지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훈 교수 연구팀, 근자외선 포토센서 효율성/반응속도 향상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 연구팀은 우한공과대학 이명옥 교수팀(본교 전자공학과 박사 출신)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기반 근자외선(NUV) 포토센서의 효율 및 반응성 향상에 성공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점연구소 및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Enhanced Spatial Light Confinement of All Inorganic Perovskite Photodetectors Based on Hybrid Plasmonic Nanostructures」의 제목으로 과학전문지 Small(IF: 11.459)에 2020년 11월 자 온라인 판에 출판되었다.

14 김민지 학생, 전남 미래인재 으뜸인재상 수상



김민지 학생(전자공학과 20)이 지난 11월 1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희망인재육성대회에서 미래인재 미래리더 부문 ' 으뜸인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통해 김민지 학생은 상패와 4년 간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김민지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15 박철환 교수, 한국생물공학회 2개 상 수상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가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2020 한국생물공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Hybrid-컨퍼런스)에서 한국생물공학회 '생물공학 학술진흥상'과 'BBE 우수편집자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생물공학분야의 우수한 학술적 능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동 학회에서 2012년 '신인학술상', 2014년 '담연학술상'과 2019년 '생물공학 학술진흥상'을 수상한 바 있다.

16 정동훈 교수, 신간 『미디어, 너 때는 말이야』 출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동훈 교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주인공들을 위한 신간 『미디어, 너 때는 말이야』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책에서 미디어와 콘텐츠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주류 소비층의 변화는 미디어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주고, 원하는 것들을 '즉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OTT가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보고 OTT 산업을 통해 앞으로 산업의 변화 속에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설명한다.

17 임영균 교수, 상전유통학술상 대상 수상

경영학부 임영균 교수가 지난 12월 3일에 열린 '2020 제2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임 교수는 유통분야의 깊이 있는 학술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유통 연구자 육성을 위한 학회 및 학술활동, 통찰력 있는 정책 제시 등으로 유통산업의 발전에도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18 신현철 교수 연구팀, 한국전자파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자융합공학과 신현철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월 20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전자파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A 60 GHz Power Amplifier MMIC Design in 0.15 μm GaAs p-HEMT Technology」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본 논문은 우리 대학 KWIX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이 팀을 이루어 수행한 연구 결과로 논문에서 제시된 GaAs 전력증폭기 MMIC 집적 회로 설계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19 이춘원 교수, 국가공간 정보발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법학부 이춘원 교수가 지난 11월 19일 2020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포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간정보분야(GIS·측량·지적)에 기여한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한다. 이 교

수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공시일원화사업 등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20 구상모 교수, 국제 심포지엄 'SiC 2020' 개최



전자재료공학과 구상모 교수가 포항공대 신훈규 교수와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2020 SiC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1월 26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본 행사는 정부, 교육부, 부산시, Postech-NINT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 SiC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과 기술개발 확대를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21 이석준 교수, 동문기업과 20억 규모 시디에이터구축사업 선정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와 동문 기업 (주)인사이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상표 이미지 및 상표 텍스트 시텍스트 구축'으로 상표 이미지 시 데이터의 추진 목적은 국내 기업이 상표 출원 전 선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절감과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22 안창범 교수,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 대상 수상



전기공학과 안창범 교수가 지난 11월 3~4일 개최된 'ASMRM & ICMRI & KSMRM 2020 Virtual Congress'에서 학회 발전과 학문 분야의 큰 공헌으로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 대상 상을 수상했다.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KSMRM)

는 자기공명 의과학(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저명한 학회이다. 매년 국제자기공명영상학회의 (ICMRI)를 개최하며, 올해에는 아시아자기공명영상학회(ASMRM)를 함께 개최했다.

23 김경래 학생, 2020 국제 e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김경래 학생(전기공학과 17)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2020 국제 e스포츠 학술 연구 공모전-논문 공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제는 「수집형 카드게임 e스포츠 활성화 개선방안 연구-레전드 오브 문테라를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는 수집형 카드 게임의 e스포츠 관람만족도를 박진감, 볼거리, 스토리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재 수집형 카드 게임 e스포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4 이종화 학생, 한국생물공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종화 학생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0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Hybrid-컨퍼런스)에서

「Process design and economic evaluation of naringenin production」를 주제로 'Microbial and Bioprocess Engineering'분야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학생은 "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플라보노이드라는 흥미로운 물질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연구 기회였는데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캠퍼스 소식

25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광운 구성원과 코로나 희망캠페인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에 동참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손글씨로 작성한 응원 문구를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장은 해동과학문화재단 김영재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26 AI번역산업연구센터, (주)플리토와 번역물 품질관리 계약 체결



AI번역산업연구센터는 지난 7월 15일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주)플리토와 번역물 품질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정부사업 중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하는 200억 규모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주관기관인 (주)플리토는 참여기관으로 (주)솔트룩스파트너스와 (주)에버트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어-영어 번역 맞춤형 AI 데이터' 구축을 위한 20억 원 규모 번역과제를 2년 연속 수주했다.

27 인공지능중점연구센터-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MOU 체결



인공지능중점연구센터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가 지난 7월 29일 광운대 80주년기념관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개발 공동수행 및 성과확산, 인공지능 분야 기술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기술 및 학술행사 기획, 홍보 협력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28 광운대-시스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5G 혁신 선도



광운대학교는 2020년 8월 12일 시스코 시스템즈와 함께 5G 기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의 목적은 광운대학교 캠퍼스 내에 5G B2B 혁신 센터 설치, 교육&연구 협력 활동을 통한 5G 기반의 B2B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및 개발이다.

29 '2020학년도 대학혁신사업단 성과발표 심포지엄' 성료



지난 12월 10일 광운대 화도관 첨단강의실에서 진행된 '2020학년도 대학혁신사업단 성과발표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기초 강연으로 성태윤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이 진행됐다. 유지상 총장은 "광운대는 ACE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토대로 이번 대학혁신사업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산학협력, 연구의 세부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30 2020년 광운대학교 광고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대외국제처 홍보팀에서 2020년 본교 입시 및 이미지 홍보에 활용할 광고 시안을 제작했다. 메시지의 핵심은 본교의 발전전략인 '창의·융합·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을 담아내는 것으로 광운대만의 독창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광고를 총괄한 대외국제처장 김경연 교수는 "광운대가 가지고 있고, 광운대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31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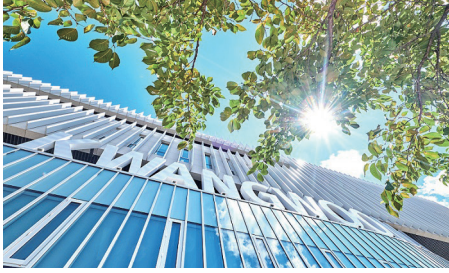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주최하는 2020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8월 20일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차 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장천, 씨엔디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원하는 가운데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의 현황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32 광운대-(주)제이엘케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MOU 체결



산학협력단이 2020년 9월 3일, (주)제이엘케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교 산학협력단과 (주)제이엘케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조 체계 구축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협력할 예정이다.

33 정책법학대학,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명 배출 및 검사 임용 1명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출신 합격자가 3명 배출됐다. 합격자는 임현진(법학09), 양성은(법학10), 안광희(법학13)이며, 이 중 임현진 졸업생은 신규 검사로 임용되었다. 로스쿨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법학부 서의경 교수는 “이번에 합격한 졸업생들은 정책법학대학의 법조인력양성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던 학생들로 학교의 지원과 지도 교수님들의 열정이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34 광운대,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 평균 13.54대1 경쟁률 기록



광운대학교는 총 1,046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 1만 4,168명이 지원해 평균 13.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든 전형 중 최고 경쟁률은 논술우수자 전형의 전자공학과가 18명 모집에 791명이 응시해 43.94대 1을 기록했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9명 모집에 378명이 응시하여 42대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35 후배를 위한 선배들의 사랑이 돋보인 전자재료인의 날 행사



전자재료공학과는 지난 10월 29일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2020년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재료인의 날 및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전자재료공학과에서는 매년 학과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자재료공학과 동문회인 삼월회와 김영준(79학번), 오환원(81), 도건우(02) 동문으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 받아 후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80학번 이철호 동문과 81학번 박윤민 동문에게 감사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36 교수학습센터, 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 우수사례 강의 선정

광운대 교수학습센터가 지난 8월, 이벤트를 통해 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교수학습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동구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 강의에 대한 노하우, 효과적인 교수법 등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우수사례는 학내 교수님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37 광운대학교 위탁 운영 '시립성북청소년센터' 현판식 개최



광운대학교는 2020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된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가자! 초연결사회로 당당한 청소년과 함께'를 미션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공연장, 방과 후 야카데미,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광운대는 2023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성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38 광운대 풋스타팀,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광운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풋스타팀'이 KDB나눔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진행한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풋스타팀은 팀장 황경준(국제통상학부) 학생, 박세훈(전기공학과) 학생, 정희운(산업심리학과)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기업가정신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Field-work 중심의 창업 교육을 개설하고 전문 창업교육가를 통한 고객 인터뷰, 시장조사 등 집중교육을 추진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다.

39 산학협력단,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산학협력단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년 간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이다.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공간 및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옥상공원 등 구리시 지역의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있다.

40 로빛, 2020년 주요 로봇대회에서 대통령상 등 7개 부문 수상 쾌거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 간 열린 로봇산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STEAM CUP-IRC, 2020 SRC IRC 대회에서 총 7개의 상을 수상했다. 로빛은 R-BIZ Challenge of 제우스 산업용로봇 ZERO 미션 챌린지 부문에서 3위 수상을 시작으로 SRC IRC 대회에서는 SEOULTECH 지능로봇-지능형시름로봇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로빛의 주장 노주형 학생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학교와 로빛을 이끌어주시는 김진오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고생한 단원들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41 2020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 창업경진대회
상황리에 종료**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했던 2020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상황리에 마쳤다. 본 대회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회,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창업과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일반 창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상팀에게는 창업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광운대 SNK-VITAMIN센터와 클리닉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부여됐다.

**42 혁신인재양성사업단 협동로봇 전문가과정,
로봇대회 4개상 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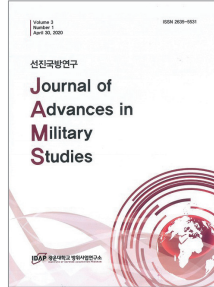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 교육생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제6회 2020년도 로봇산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상, 한국로봇산업협회회장상 등을 석권했다. 혁신인재양성사업단의 김윤희 초빙교수는 "협동로봇 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과정을 수강한 2기 학생들이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기쁘다"라며 "광운대생들이 내년 3기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43 백예슬 학생팀,

WISET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7일,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백예슬 학생팀은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가 주관한 'WISET 2020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최종 결과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백예슬 학생은 "대학원생이 연구책임자를 맡는 흔치 않은 경험으로 리더의 역할과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44 방위사업연구소 학술지,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방위사업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선진국방연구』가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연구소는 지난 2015년에 산학협력단 대학중점연구소로 승격한 이후, 201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심상철 소장(국제통상학부 교수)은 "『선진국방연구(JAMS)』는 인문 사회와 이공 분야를 아우르는 국방 분야 연구 활성화에 위해 국방 및 방위산업 정책의 국가전략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융복합 학술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45 외국인 유학생들,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봉사 활동 진행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11월 21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공익기부법인 삼각산 아름다운 동행에 통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총 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영어산업학과 팜티하이유넷 유학생은 "한국으로 유학 온 이후 처음 참여한 봉사 활동인데 친구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 뿌듯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46 산학협력단, 2020년 청년 창업 바이브 포럼 개최



서울창업디딤터를 수탁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지난 12월 2일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학 주도의 청년창업 발전방향 탐구'라는 주제로 2020년 청년 창업 바이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광운대 유지상 총장을 비롯하여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영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주창립 PD, 고벤처포럼 이상학 부회장, 박태원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장, 최상열 인덕대캠퍼스타운사업단장, 유정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청년 창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47 '광운을 응원합니다!'

#광운대_어게인 캠페인 시상식 개최



2020년 11월 30일 광운대 홍보팀에서는 지난 11월에 2주간 진행되었던 #광운대_어게인 캠페인 광고포스터공모전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광고포스터 공모전의 대상(화도상)은 미디어영상학부 김도희(18), 박지은(19) 학생팀이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중앙광장을 배경으로 광운인들에게 힘을 내보자는 메시지를 담아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공모전의 대상은 힘든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다시 오길 기다리는 광운대 구성원들 모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제작한 정보융합학부 조하연 학생(17)이 수상했다.

48 건설법무대학원, 동문 김희국 국회의원 초청 특강



건설법무대학원이 지난 12월 10일 동문 출신 김희국 국회의원을 초청해 교내 한울관 강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및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우리 대학 건설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대학원에서 건설법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광운이 만드는 미래

발전기금 기부방법 안내

기부 약정이
더 간소해졌습니다.

PC · 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CMS), 카드 결제, 급여공제(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단 기부 : 고인의 유언증서,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발전기금 종류 및
기타 후원방법 안내

- **발전기금 종류**
 - 광운사랑 발전기금 :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지정발전기금 : 기부금의 용도 및 대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학과, 대학원, 건축, 장학, 연구 등)
-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방법**
 - 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후원문의

•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화도관 104호
• 홍보팀 Tel : 02-940-5505 Fax : 02-940-5506 e-mail : kwlove@kw.ac.kr

여러분과 함께 광운대학교는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발 전 기 금 약 정 명 단

500억 이상

조무성 초대총장

10억 이상

삼성전자

하나은행

해동과학문화재단

1억 이상

광운대 총동문회

구관영 응용전자공학 69, 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국민은행 광운대 지점

김문찬

김영준 전자재료공학 79, 트래비스 대표이사

대한축구협회

로봇게임단 로빛

신한은행 노원역지점

엄평용 응용전자공학 77, 유진테크 대표이사

엘지전자

오경호 도원원구 대표이사

오종택

이용주

이재령 전자통신공학 74, 전 에릭스엘지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인프라넷

임용재 전자계산기공학 88, 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전인구 전기공학과 86, 테크윙 사장

정용택 학부모(산업심리학과 정성훈)

현대자동차

1천 이상 1억 미만

GS 스포츠

ROTC동문회

간송학술장학재단

강릉초당두부

강영현 환경대학원 07

광운포럼

광주 FC

김대홍 교수 화학공학과

김문석 경영학과 88

김병호 교수 화학과

김상률 경영대학 외래교수

김성길 교수 교육대학원

김은수 명예교수

김인태 교수 화학과

김장곤 무선통신공학과 64

김진오 교수 로봇학부

김해진 전파공학과 94

김호더래버리토리

나비교

남학현 석좌교수 화학과

대학원 동문회

도서출판 북스힐

도쿄 FC

디지털컴

디지털국제공조

류정범 AMP19대 회장

마이크로트랙

미래환경플랜

박상열 교수 법학부

박인비 생활체육학과 08

박종길 산업경영학과 84

박종문 응용전자공학 68

부동산법무학과 원우회

부천FC

블랙야크

산학협동재단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원우회

서울시축구협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손광철 교수 정보콘텐츠학과

손정안 화학공학과 91

송관호 대학원 동문회장

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

신화빌딩

심상렬 교수 국제통상학부

아비스파 후쿠오카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엄정근 전자공학과 70

에버트란

여중섭

우리들교회

우리는행장위동지점

원중숙 교육대학원 12

원철상 국제통상학과 02

위드유편입

윤경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9

윤도영 교수 화학공학과

윤영자 교육대학원 12

이대희 교수 행정학과

이랜드스포츠

이문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5

이반스포츠

이상우 명예교수

이상진 경영대학원 AMP 47기

이상철 전총장

이상현 건축공학과 89

이승현 교수 인제니움학부

이현석

인사이터

인천유나이티드

임옥순

전남드레곤즈

전영무 교수 화학과

전자공학과83학번동문회

전자재료공학과 삼월회

전홍배 교수 화학과

정동훈 교수 미디어영상학부

조화준 교육대학원 13

주에스원

진철평

차근식 명예교수

창암장학재단

채널진

천성오 직원

천정호 전총장

최선윤 응용전자공학과 73

최용락 화학과 89

축구부 학부모회

커미트

탁진국 교수 산업심리학과

태전플란트치과

통일스포츠

파이터치연구원 재단법인

포항스틸러스

피앤비우창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한병우 건설법무대학원 17

한중희 교수 행정학과

한태희 화학과 94

함원미 교육대학원 13

헵시바

혁신전공사

현대홈쇼핑

홍일기 경영대학원 AMP 50기

홍창표 전자공학과 74

5백 이상 1천 미만

광운대학교 재직동문회

교육대학원 원우회

권순철 교수 스마트융합대학원

김광섭 교육대학원 15

김기영 전 총장

김용희 전자재료공학과 79

김유근 직원

김현정 교육대학원 13

대송이앤에프(주)

도건우 전자재료공학과 02

류기환 교수 글로벌교육센터

박구현

박학동 직원

베갈타센다이

신재호 교수 화학과

심동규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썬웨이브텍
아이센스
안영옥산부인과
우원테크놀러지
윤종태
이상록
이용대
이유미 교수 화학과
이일재 교수 영어산업학과
임도용 교육대학원 12
임종태 응용전자공학과 66
장락우 교수 화학과
장지훈
전자통신공학과 84학번 동기회
정달호 학부모(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정석재 교수 경영학부
정지혜 대학원 15
조형민 전자계산기공학과 85
최원기
케이제이아이
태영건설
티앤씨프로
하정인디스트리
홍규화
황윤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6

1백 이상 5백 미만

BASF
GH타워
GS건설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SC제일은행
가가와
강미영
강우람 산업심리학과 05
강인선 교육대학원 06
건설법무대학원24기 원우회
건원엔지니어링
경남FC
계룡건설산업
고재욱 교수 화학공학과
공간종합건축사
곽인찬
곽태형 화학과 94
광운분식
광운플레이어스
권배근

권순철 교수 스마트융합대학원
권태복 교수 법학부
권혁준 교육대학원 12
권현영 교수 대학원
김경선
김고은 교육대학원 14
김남영 교수 전자공학과
김명순 교육대학원 14
김민동 교수 법학부
김보경 전자계산 98
김석우 교육대학원 13
김성국
김성수 전자통신학과 84
김양태 교수 화학과
김용환 제어계측공학과 92
김용환 제어계측공학과 92
김윤희 전자재료공학과 01
김윤희 직원
김은죽 교육대학원 13
김정주 직원
김주찬 교수 행정학과
김준엽 직원
김진곤 교수 법학부
김태훈 직원
김형석 교수 전기공학과
김화열
김흥빈
나안섭 건설법무대학원 20
남성전 영어영문학과 08
남영건설
네이버시스템
노진이 직원
뉴바바
다인그룹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흥코리아주식회사
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동부건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사무소
디에이치에드앤이
디엔제이
로보티즈
로얄종합상사
롯데건설
매스매스에이스
모아건설

무영씨엠씨건축사사무소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문상현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경애 교수 교육대학원
박석 교수 스포츠융합공학과
박선하 직원
박성원
박수원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박수진 교육대학원 13
박일우 교수 로봇학부
박재석 전자재료공학과 85
박정우 경영대학원 05
박종구 교수 행정학과
버프프로덕션
변대원
변우경 교육대학원 11
본그레이
부경희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브라운에듀
비앤컴컨설팅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삼성물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양동 건설법무대학원 18
서울시아시아스하기협회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정훈 직원
세퀘이 서울
송승호 교수 전기공학과
송시현 교육대학원 13
슈엔도로시
시대의 시선
신만중 교수 법학부
신상훈
신일제약
싸인텔레콘
쌍용건설
아이스하기부동문화
아이스하기부학부모회
아큐멘경영연구소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애드런
에이앤유디자인
연구인 건설법무대학원 17
오세훈
오준희 직원
오창남 학부모

와이넷미디어
와이앤하우컨설팅
왕승찬 직원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우미건설
원양건축사사무소
월계대반점
위피피
유선봉 교수 법학부
유지상 총장
유태호 정보통신공학과 78
유희웅 전자공학과 03
윤이숙 교수 국제협력학부
윤환식 통신공학과 67
이기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서 명예교수
이도준 응용전자공학 74
이병헌 교수 경영학부
이상경 교수 법학부
이상균 행정학과 84
이상신 교수 전자공학과
이상주 동문
이선호 행정학과 89
이수건설
이수건설
이승택 교육대학원 13
이영남 화학과 80
이욱진 교수 스포츠융합공학과
이상상 직원
이정훈 교수 전기공학과
이지영 직원
이창석 직원
이철호 전자재료공학과 80
이춘원 교수 법학부
이춘근
이태로
이희형 대학원 02
이혁준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현 대학원 02
이현웅 경영대학원 12
이형근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혜영 교수 행정학과
이혜진 전기공학과 07
일선종합건설
임영균 교수 경영학부
임창국 국어국문 90
장성균 무선통신학과 73

장흥제 교수 화학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김병욱 화학과 93	김지찬
전승협 법학과 03	핸디언즈	김보영 직원	김진상 행정학과 86
전용암	하구철 전자공학과 80	김복기 전자공학과 81	김창동
전지현	허돈 교수 전기공학과	김봉신 교육대학원 13	김충혁 전기공학과 78
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	김상건 교직원	김태규 화학과 89
정병태 전자공학과 68	현대엠코	김상훈 교수 경영학부	김학욱 화학과 97
정승기 교수 전기공학과	홍광의 수학과 88	김석원	김현
정은진 직원	홍진웅 명예교수	김석태 전자공학과 76	김혜정 교육대학원 11
정인준 전자공학과 68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설영 교육대학원 10	김홍빈 대학원 12
제기홍 전기공학과 74		김성룡 직원	김효겸 산업경영학과 84
조재희 교수 정보융합학부	1백 미만	김성호	김희교 교수 동북이문화산업학부
조진웅 전자통신공학과 82	KBS	김성호 화학과 01	김희정 경영학과 05
조현주	간심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소영 화학과 98	나극환 교수 전자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강민철	김수철 통신공학과 77	나인표 경영학과 86
주식회사 생각을 건다	강신저 교육대학원 14	김숙진 교육대학원 14	나준오
주식회사 안테나필름	강태경	김숙희 교육대학원 13	남승우 직원
(주)아크프로덕션	강황성	김순일 교육대학원 14	남해울 컴퓨터공학과 14
참사랑	강효경 교육대학원 06	김승규 건설법무대학원 18	노진이 직원
채영준 화학과 92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김승수 교육대학원 04	도승연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천지산업	고병엽 직원	김승진	동해종합기술공사
최상욱 행정학과 84	고선아 교육대학원 13	김승춘 대학원 08	라태웅 경영학과 06
최윤정 직원	곽민희 화학과 99	김신한 화학과 00	만알용
최재혁	권기성 교수 행정학과	김애자 교육대학원 13	문경 교육대학원 13
최철순 교수 스포츠융합과학과	권기청 물리학과 88	김양래 교수 화학과	문명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0
최해욱 교육대학원 09	권미현 화학과 05	김연영 화학과 01	민상원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카리빈캠프	권지숙 직원	김영란 직원	민영섭 행정학과 85
케임브리	권현숙 교육대학원 14	김영무 직원	박범창 화학과 05
탁정에 화학과 90	극동건설	김영부 응용전자공학과 71	박상준 생활체육학과 14
태영건설	기문사	김영조 스포츠지도자학과 01	박상준 화학과 05
토문엔지니어링	김경채	김용문 직원	박소연 교육대학원 14
티웨이항공	김경호 학부모(생활체육학과 김현우)	김욱 화학과 99	박용우
파라다이스세가사미	김관일	김윤정	박유진 교육대학원 03
패밀리마트	김기윤 교수 경영학부	김윤현 전자재료공학과 01	박정호 화학공학과 12
포스코건설	김나현 교육대학원 13	김윤희 대학원 12	박찬만 직원
표정우 직원	김남선 교육대학원 13	김인기	박찬엽 화학과 99
피에이씨	김대선 교육대학원 08	김인숙	박철환 화학공학과 93
학지사	김대식 직원	김임순	박태우 동문
한국마사회	김대호 화학과 93	김재미 동북이통상학부 08	박필에 교육대학원 12
한국마이크로칩	김도현 국제협력학부 14	김정권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박하나 직원
한국방재기술	김동균 환경공학과 91	김정균	박해우 전자계산기공학과 86
한국번역가	김동선 교육대학원 14	김정기 화학과 94	박해진 화학과 96
한미파스스	김동은 교육대학원 14	김정숙 교육대학원 12	박현규 전기공학과 86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김동인 직원	김정주 교육대학원 12	박현자 교육대학원 11
한신공영	김래오 직원	김중현 교수 전자융합공학과	박현지 행정 02
한춘 명예교수	김마리아 교육대학원 14	김준모 건설법무대학원 18	반상욱 직원
한화건설	김민기 화학과 04	김준현	반윤구
항림	김민원 교육대학원 11	김지숙 화학과 99	배경호 화학과 96

백주훈 교수 로봇학부	윤선희 교육대학원 14	이현순 직원	최금주
백향기 교육대학원 11	윤우진 화학과 92	이현승 화학과 08	최동호 전자통신공학과 16
변숙은 교수 경영학부	윤윤석 명예교수	이혜정 화학과 96	최민희
사영진 교수 화학과	윤재우 미디어영상 15	이화정 교육대학원 11	최병광 직원
서영화 교육대학원 14	윤재우 미디어영상학부 15	이홍섭 경영학과 98	최복선 교육대학원 10
서상구 교수 경영학부	윤탁 상담복지정책대학원 09	임시혁 경영학과 06	최상두
서승원 화학과 88	이 흥 교수 경영학부	임익순 교육대학원 13	최성수 화학과 99
서영경 교육대학원 13	이강백 전기공학과 82	임종대	최승오 교육대학원 14
서영교 전자공학과 14	이강성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임종식	최인찬 전자계산기공학과 82
서영호 교수 전자재료공학과	이건영 교수 전기공학과	임하순	최재완 직원
서정선 교육대학원 14	이경철 컴퓨터공학과 09	임형태	최재준
서정훈 직원	이근수 화학과 05	임호선 직원	최재정 직원
성백순 경영학과 06	이대의	임화영 교수 로봇학부	최정순 교육대학원 13
소민광 직원	이동석	장경순 직원	최정훈 직원
손기인 화학과 96	이동의 정보제어공학과 03	장동훈	최중대 화학과 89
손재봉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이두병 화학과 91	장미화 교육대학원 13	최주엽 교수 전기공학과
손화수 직원	이미영 교육대학원 13	장익수 교육대학원 04	최준혁 교육대학원 15
송경언	이병헌 교수 경영학부	장창훈	최진철 신문방송학과 95
송영철 교수 경영학부	이상중	정홍제 교수 화학과	최진영 컴퓨터공학부 99
송은숙 교육대학원 11	이상혁 제어계측공학과 92	전도현 전자통신공학과 16	최혜숙 교육대학원 11
송의식	이상훈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전병호 스포츠지도학과 02	츄로바이커피
송형수 교수 수학과	이선정 화학과 01	정경진 대학원	탁연복 학부모(경영학부 이승원)
신문철 직원	이성은(평강어린이집) 교육대학원 15	정경학 전자계산학과 91	파란나라어린이집
신용문 건설법무대학원 18	이성재	정기봉 대학원 12	평생다문화전공
신유진 직원	이승희 직원	정문호 교수 로봇학부	한솔시스템
신재현	이영숙 교육대학원 10	정수미 교육대학원 14	한해리 화학과 05
신정희 교육대학원 13	이영희	정승철	한호숙 교육대학원 14
심천보 전기공학과 86	이윤희 교육대학원 13	정영욱 교수 전자공학과	함순정
안길환 화학과 99	이윤석 화학과 92	정용준 경영학과 83	허정 신문방송학과 96
양성현 교수 전자공학과	이윤식 직원	정인숙 교육대학원 11	홍명헌
양창근 건축공학과 91	이윤정 교육대학원 14	정인영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홍정숙
예약수	이윤희 교육대학원 14	정주원 영어영문학과 02	홍헌표 화학과 95
오승인 직원	이재선 화학과 93	정진우 직원	황대영
오현주 화학과 06	이정운 미디어영상 17	조석효	황문희 교육대학원 11
온정훈 화학과 97	이정운 미디어영상학부 17	조선영 이사장	
용철중 법학과 07	이정준 화학과 00	조수열 직원	
우동영	이종열 직원	조애량 교육대학원 11	
원재당악국	이종용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조영록 직원	
원정아 교육대학원 14	이종혁	조영주	
유미애 학부모(컴퓨터공학부 김승모)	이주형 화학과 01	조인성 교육대학원 14	
유정호 교수 건축공학과	이지향 교육대학원 15	조인숙 화학과 97	
유콘시스템	이진경 직원	조충현	
유형훈	이창문 직원	조형선	
유형훈 직원	이창민 화학과 95	주문수 화학과 88	
윤명선 교육대학원 14	이창석 직원	진광희 교육대학원 14	
윤상호 대학원 12	이창석 화학과 92	진정민 교육대학원 14	
윤선영 화학과 05	이현명 직원	차주현 대학원 14	

2009년 8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4 차 산업 혁 명 의
심 장

광운대학교 와인

몬테스 알파 멀롯 Montes Alpha Merlot

누적 판매량 1,000만 병을 돌파하며 국내 브랜드
부동의 1위의 몬테스 알파는 와인은 잘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Red Wine 칠레 / 콜차구아 밸리 32,000원



퀘르체토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Querceto Chianti Classico Riserva

끼안티의 가장 핵심 지역인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생산자들이 검은 수탉을 문장으로
사용하는 '끼안티 클라시코 콘소시움'을 구성,
퀘르체토는 이 콘소시움의 창립멤버입니다.

Red Wine 이태리 / 토스카나 39,000원



와인 판매 수익금은 광운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구입문의 나라셀라 특판본점 Tel 02-405-4351 e-mail uni@naracellar.com



광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w.ac.kr>



광운대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http://news.kw.ac.kr>



광운대학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wangwoonuniversity>



광운대학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w1934>



광운대학교 광운영상방송센터
<https://www.youtube.com/user/KWBConair>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광.운.생.각.

중앙광장을 가득채우던
자유롭던 기운 잃지 말고
이시련 대수롭지 않게 넘기길.

어게인,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여겨지길.

광운대 어게인 화도상(대상) 수상작
김도희/박지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